

安東宗親會 新年人事會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안동종친회(회장 권재주)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안동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일가족전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정달 대종원총재 내외분, 권영해 前 안기부장 내외분, 권영세 안동시장, 권오을 前 국회의원, 권오을 前 국회 사무총장 내외분, 권기창 교수,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권기수 안동문화체육협장, 김명호 도의원, 권인찬 前 도의원, 김백현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억·광택·기탁 안동시의원, 권영

대 안동성소병원장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권재주 회장은 인사에서 올해 흉풍의 해를 맞아 모두가 만사행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씀하며, 권정달 총재, 권영해 前 안기부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오을 前 국회의원, 권오을 前 국회 사무총장, 김광림 국회의원 등 각 축사가 있었다.

다음 권재주 회장이 권란옥, 권순희 씨에게 효행상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행사를 마치고 상품권 추첨(74점)에 들어가 종친회부회장 임원이 추첨해 당첨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화기에예한 가운데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오일 기자>



△17. 안동종친회는 안동시민회관에서 1,300여명이 참석하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왼내 좌: 권정달 총재, 우: 권재주 회장)

派宗會長協議會 送年會 臨時總會

파종회장협의회

송년회

임시총회

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정달)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금) 송년회 겸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정조공파종회장인 권기룡(權奇龍) 총무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상응례에 이어 회장의 인사와 권정달(權正達) 총재의 격려사를 대독하였다.

총무의 경과보고와 회칙 낭독에 이어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회칙 일부를 수정하고 동정공파종회 권오수(權五秀) 부회장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회의 기금운용 방안을 결정하고, 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타토의에 들어가서 송조정신을 함양하고 본회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며 문중의 단합 및



△파종회장협의회 송년회 겸 임시총회 후 기념촬영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본회의 사업과 운영방법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한 후 폐회하

고 중식을 하며 화기에예한 분위기에 가운데 오랜 시간 환담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파종회장협의회 총무 권기룡>

부산종친회 임진년 신년 하례회



△부산종친회는 1월 11일 연산동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왼내 권길상 회장, 본원 부총재)

부산종친회는 지난 1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연산동 부산은행9층 해방부에서 일족 및 회원 160여명 참석하여 임진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권정수 부회장 사회로 상례 행사를 마치고 내빈소개로 차기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권기우 변호사, 권문 집안의 며느리로서 전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정씨를 소개하였고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등을 소개하였으며 운영위원, 각구 종친회 회장 정장년,부녀회, 부장, 좌윤 등산회 플루피 회장 등을 소개 하였다.

권길상 부산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임진왜란을 겪은 지 420년이 지난 국난극복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역사속에서 버릴 수 없는 권을 도원수와 이순신 장군 두 인물을 온 국민이 한결 같이 존경하고 그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권을 도원수의 행주대첩의 전적 재조명에 근자 각별한 관심이 제고되는 것은 같은 자손으로서 새로운 긍지를 갖게 됩니다. 제가 금년에 전국지역총친협의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만 대중원이 지향하는 종사발전의 과제추진상 부산 지역의 대표자란 당위성 때문에 파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부산 종친회 재 선임기간 중에 회무수행

에 더욱더 배전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면서 올해의 회무 수행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종친인화에 역점을 두고 둘째 각급 조직의 기능을 살려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겠으며 셋째 정기총회를 더욱 즐겁게 해 보고 싶고 넷째 성지선영 순례를 현실성 있게 시도하여 견문을 넓혀주고 다섯째 많은 종친님들이 종친회관 방문담소의 빈도를 높여서 족의를 더욱 돈독히 하겠음을 약속 하고 아무쪼록 지난해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는 임기의 장기가 타성을 가져오는 흠이 있음으로 집행부에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채찍질 하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고 하시는 사업변창하시고 가내 일 년 내내 기쁨이 넘치길 기원 합니다." 라고 하였다.

권영한 고문은 청도 남중공단소의 이단 후 경과와 권길상 회장 권재혁 사무국장의 그간의 노고를 칭찬하였고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임진년 새해 복앙이 받기를 큰 절로서 인사 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권영 2.1회장의 남중공단소 이전과 시조묘소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화강좌로 설명하였으며 권재혁 명예회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치고 만찬과 노래자랑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재혁 사무국장>

권흥사 반도건설회장

"올해 1.2조 수주·4,000가구 분양"



경명목표를 세웠다.

권흥사 반도건설 회장,본원 부총재는 지난 1월 4일 "올해도 유로존 문제와 함께 국내 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되었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와 양산신도시2,3차에서 최초로 소형 면적 4-4.5베이(Bay) 평면 설계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 회장은 "지난해 분양

성공의 키워드인 '평면특화 4.5베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평면개발에 욕심과 주방특화를 추가해 공간 특화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은 올 2월에 선보일 양산4차의 경우 대형 면적에 적용하는 부부욕실과 공용욕실내 욕조와 샤워부스를 중형에 설치하는 등 기존 1-3차에서 나온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2015년 30대 건설사에 진입"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반도건설>

세계 관광기구 스텝재단 이사장에 도영심씨 재선



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재단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

스텝재단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기구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때 출범했다.

한편 도영심재단 이사장은 세계 각국과 관광 문화교류 협력이 많은 업적을 남겨 우리나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면서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빈곤퇴치는 물론 원조보다 교육을 통한 문맹퇴치가 우선이며 그 방법 중 하나가 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선 도서관을 많이 지어 누구나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교양과 학식을 쌓아 빈곤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느끼고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다니며 2007년 10월에 시작해 2011년 3월까지 100개의 도서관을 세움으로서 교육육성에 헌신하기도 했으며 더불어 2010년 12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세계교육혁신서밋'(WISE)에 참석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 어린이를 위한 세계교육재단 설립에 동참하기도 했다.

<편>

靖簡公宗會 新年交禮會

정간공중회

신년교례회

추밀공파 정간공중회(회장 權準)는 1월17일 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홍보실에서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정간공중회는 예하에 평후공중회, 문충공중회, 매헌공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밀공파 종원 28만6천여명 중 16만6천여명의 종원으로 58%를 점하고 있고 안동권원의 21%를 점하고 있는 대 문중이다. 또한 정간공파는 추밀공파의 5대손으로 휘 능이며 영가부원군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을 지내시고 기로소에 처음 입사하여 권문 4시의 기로소지시(耆老所之始)를 창시한 분이시다.

총회는 권의철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께 망배를 올리고 상응례 후 회장은 종회의 신년회를 위하여 멀리 강릉, 원주, 상주, 음성, 서울, 경기 등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주어 감사를 드리며 본인이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짐을 느끼며 지난 십여년간 중회를 반석위에 올려 놓은 혁신 전임회장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총회는 3개 지파회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중지를 모으면 중사는 잘 운영될 것으로 보며 여러분의 조언과 지도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운과 용의 해에 비룡상천하는 일만만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회장은 신년회에서 권혁승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임원 추가 선임에 있어 명예회장을 권혁승



정간공중회 신년회에서 태사공께 망배를 올리고 있다. 왼내 영의회장이 혁신 전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회장으로 선임하고, 고문 3인, 부회 하였다. 고문은 권오실, 영필, 음식, 장 3인, 종무위원 12인을 추가 선임 영한, 중원, 오성, 순일씨이다. <편>

安東權氏宗報 宗是: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奇異·社會倫理培養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景哲 인쇄인 權寧雄

발행주소: 安東權氏大宗院: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 854-2257
태사도 연락처: (054) 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ankwonjung@yahoo.co.kr / andongkwon@paran.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태하
記者	권범준, 권오인, 권희세, 권경일
자문위원	권정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중흥회, 대종회)	종보사(개인독자)
권경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우체국: 종보사
(중흥총회) 농협 076-02-247343	010108-01-000369

大宗院 任員手帖 誤記 校正을 받습니다

안동권씨대종원은 2011년 6월7일 출범하여 顧問 總裁團 宗務委員 代議員을 選任 하였으며 그동안 개인별 인적사항을 접수하여 手帖을 발간, 385명 全員에게 우편으로 配布하였습니다.

- 접수치 못한 분은 대중원으로 연락주시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1인 1부에 한하며 사본을 금하고 있습니다.
-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팩스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95-2483/4 팩스: 02-2695-2485 (권범준 부장)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105-3(2층) 안동권씨대종원(우130-820)

安東權氏大宗院

안동권씨홈페이지 운용안내

- 종친회는 해당 단체에서 입력하며, 게시판 중 문헌행사 및 회원광장은 각 문중 및 종친회별로 게시판 운영자를 임명하여 자체의 행사 및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권문행사 및 회원광장은 회원가입시 기구별 관리 책임자를 직함(회장, 총무, 사무국장, 인터넷 담당 등)을 입력해야 준 관리자로 승인해 주며 사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ID입력시 ID창 위에 "아이디 사용"을 클릭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수정으로 기존가입회원은 입력이 안될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
- 파종회, 지파중흥은 종친회관의 지파중흥과 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

